

28.09.2025

연중 제 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68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166 (생명의 양식)	Christ Be Our Light (Eng. 프린트)

제 1독서 | 아모스 6,1.4-7

화답송 |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좌)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우)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좌)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독서 | 티모테오 6,11-16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6,19-31

오늘의 묵상 구절 |

<야고보 서간 2,14-17>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제 1독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그들은 상아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 떼에서 고른 어린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수금 소리에 따라 되짚은 노래를 불러 대고
 다윗이나 된 듯이 악기들을 만들어 낸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제 2독서>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제때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 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님들의 주님이신 분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뵈는 일이 없고 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예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20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21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22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23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24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25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26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27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29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30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31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루카 22:14-23)



예수님이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걸 얼마나 즐기셨는지는 성경 도처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오죽해야 완고한 율법학자들로부터 아무하고나 먹고 마신다는 비난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먹지 않고도 배부른 도술을 부리는 분이거나 사람 안 보는 데서 혼자서 점잖게 식사하는 분이었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다운 것은,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게 열심히 설하시면서도 말씀만으로는 배부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어여뻐 여기시어 당신을 따르는 이를 결코 배고픈 채로 돌려보낸 적이 없다는 것 아닐까요. 또한 먹는 행위를, 배를 채우려는 생리적인 욕구에 국한시키지 않고, 더불어 먹음으로써 친교의 경지로 끌어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초대했거나 초대받은 식탁은 서너 사람이 앉았던 오천 명이 앉았던 하나의 생명체같이 살아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만찬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빵과 포도주를 서로 나누는 기쁨과 만족감, 친밀감 대신 어딘지 불안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유연과도 같은 예수님의 비장한 말씀 때문만은 아닙니다. 판마음을 품은 배신자와 식탁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예로부터 13이라는 숫자를 불길하게 여기는 풍습도 배신자까지 합한 최후의 만찬장 인원이 13명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3분의 1의 배신은 결코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도 많지만 온갖 아름답고 착하고 훌륭한 목적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 뭉쳐 정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 단체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더 옹고 아름답기를 다투는 명분은 많아도 그 대로 된 건 거의 없는 걸 보면 배신의 비율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의 화합에 금이 갈 때마다 누구 때문일까, 눈에 불을 켜고 배신의 혐의를 씌울 만한 상대를 찾게 됩니다. 물론 자신은 빼놓고지요.

아무도 곧 팔아넘길 예수님과 천연덕스럽게 식탁에 같이한 배신자 유다와 자신을 비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절을 앞두고 판공성사 준비를 하면서 모처럼 내 안에 있는 유다의 비율을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차려주신 소박한 식탁에 앉아 악마가 차려 주는 기름진 미식을 꿈꾼 적은 없던가? 물질을 위해 자유를 판 적은 없던가? 집 안의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여봐란 듯이 십자가를 모셔놓고 속으로는 세상에 믿을 건 금송아지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남을 칭찬할 때보다 욕을 할 때 더 쾌감을 느끼지는 않았나? 이렇게 따져가다가 저는 그만 아이고 주님, 하면서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강도의 마음으로 의인의 얼굴을 하고 산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저는 아마 계속해서 제가 의인인 줄 알았을 겁니다. 주님, 제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감사합니다.

공지 사항

1. 추석 맞이 한가위 미사 및 행사 안내

* 날짜: 10월 5일 (주일)

* 일정:

- 11:30 ~ 12:00 연도 및 분향
- 12:00 ~ 13:00 미사
- 13:00 ~ 14:00 점심식사
- 14:00 ~ 16:30 윗놀이 등 미니게임

<미사 후 행사 및 식사 나눔 안내 >

* 식사 나눔을 위하여 사목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가정당 한 접시씩 준비해 오시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눔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다음주 미사 지향 신청

돌아가신 가족, 친척, 지인을 기억하며 미사 지향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전 입구에 놓여진 '미사 지향 신청서'에 지향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한가위 윗놀이 신청서

다음주 윗놀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팀별로 (한 팀 4인~5인)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을 아직 못 구하신 분들께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성함과 세레명을 적어주세요.

4. School Holiday 아이들(유아&청소년) 활동

* 장소: Bounce Belconnen

* 일시: 10월 11일 (토) - 9:30 ~ 14:00

-참가방법: <https://forms.gle/8mAhUDVqT9Z7z9bk9>

URL 접속 혹은 QR 코드 스캔하여 신청해주세요~



5. 2025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교황 담화문

읽기: <https://www.cbck.or.kr/Notice/20250379>



| 미사 참례자 수 |

9월 14일	유아·청소년: 25명	성인: 45명
9월 21일	유아·청소년: 17명	성인: 47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9월 28일)	요한반
다음주 (10월 5일)	루카반

| 봉헌금 & 교무금 | (9월 20일 ~ 9월 26일)

봉헌금	\$ 381			
교무금	\$ 460			
구민식	권모순	남궁영근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이지영	정은영	주정자	

| 기도 지향 |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